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Norway in a Nutshell

35. 겨울 플람스바나

플람스바나 열차가 출발할 시간이 되었다. 박물관에서 보았던 초기 플람스바나 모델과 닮았지만 네모나고 각진 초록색 열차였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앞에서 객차를 끌고 갈 초현대식 기관차였다. 유선형으로 날씬하게 생긴 은빛 기관차는 뒤에 달린 구식 플람스바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마치 스타트를 앞둔 육상선수처럼 트랙 위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또 한 번 기대에 가득차 열차에 올랐다.

플람스바나 객실의 내부는 아주 넓었고 온통 마호가니와 주황색으로 장식되어 향수 어린 분위기를 자아냈다. 관광열차이기 때문에 창문이 매우 커서 열차 내부 어디서든 바깥이 잘 보였는데 비수기라 관광객이 별로 없어 텅텅 비어서 가게 된 것이 아이러니 하게 느껴졌다. 좌석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아무 곳이나 원하는 곳에 앉으면 된다. 나는 일단 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좌석 전부를 차지하고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다.



정확히 오후 2시 40분에 플람스바나는 출발했다. 차갑게 얼어붙은 겨울 햇빛 속으로 미끄러지듯 떠나는 열차는 앞으로 20개의 터널과 1개의 다리를 지나면서 또 한 번 우리에게 노르웨이의 산천을 보여줄 것이다. 눈과 얼음으로 덮인 바깥 경치와 달리 열차 실내는 훈훈하고 안락해서 모두 외투를 벗고 자유롭게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다. 관광선이라 시속 25마일로 느리게 가는 열차는 탈경 탈경 정겨운 소리를 내며 달렸다.

노르웨이의 산천은 어디로 가던 산이나 협곡이 있고 그 밑에 강이나 계곡이 있거나 평평한 지역이 펼쳐진다. 평지에는 간혹 한적한 마을이 보이고 그 마을을 지나면 다시 험준한 협곡과 강, 계곡, 평지가 되풀이된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풍경이 흑백으로 얼어 붙어 있어서 스산하고 적막하게 느껴지지만 그 스산하고 적막한 풍경이 바로 때문지 않고 자연 그대로 보존된 노르웨이의 겨울이었다.

플람스바나는 계속 달렸다. 산을 깎아 만든 기차길이라 마치 절벽에 붙어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창으로 내다보면 철도 바로 밑에 얼음이 떠내려가는 강이 흐르고 있어 마치 떨어질 것처럼 아슬아슬하다가 금방 어두운 터널로 속 들어가기도 하면서 쉴 새 없이 앞으로 간다. 한쪽으로 마음이 나오면 그쪽으로 옮겨가 창에 얼굴을 대고 내려다보기도 하면서 모두 플람스바나 여행에 푹 빠져들었다.

한참 달리던 기차가 또 하나 터널을 앞에 두고 갑자기 정차한다. 그곳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휴스포센(Kjosfossen)이었다. 여기서 5분 쉬어 간다는 안내 방송이 나와 관광객들이 모두 내렸다. 약 225미터 높이의 S자형 폭포는 천둥소리를 내며 세차게 쏟아져 여름에는 앞에서 구경하는 관광객들의 옷이 다 젖는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거대한 얼음 폭포였다. 강물이 산 위로 넘쳐 쏟아져 내리는 듯한 폭포가 통째로 얼어 있는 광경은 생전 처음 보는 장관이었다. 사방을 둘러 보니 폭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얼어 있는 얼음 세상이다. 온 천지를 울리는 휴스포센의 거센 물줄기를 보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이렇게 꽁꽁 얼어 붙은 휴스포센을 언제 또 볼 수 있으리라 싶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열차가 출발한다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모두 올라타자 플람스바나는 출발하며 앞에 뚫린 터널로 천천히 들어갔다. 이 터널은 '머리핀' 터널이라고 불리는데 터널 안에서 기차가 180도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제 다음 목적지 뮌달 쪽으로 향한다. 뮌달에는 3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날은 벌써 어둑하게 저물고 있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진을 찍는 가운데 열차가 출발한다는 방송이 울려 퍼졌다. 모두 올라타자 플람스바나는 출발하며 앞에 뚫린 터널로 천천히 들어갔다. 이 터널은 '머리핀' 터널이라고 불리는데 터널 안에서 기차가 180도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제 다음 목적지 뮌달 쪽으로 향한다. 뮌달에는 3시 30분에 도착할 예정이다. 날은 벌써 어둑하게 저물고 있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정상 영업합니다

•남자 컷 \$12^{UP} •여자 컷 \$20^{UP}
 •펌 + 컷 \$50^{UP}
 •칼라+컷 \$50^{UP}
 •칼라+헤어트리트먼트 \$60^{UP}
 좋아하는 고객의 머리결은 저희 기쁨입니다

모발 손상이 전혀 없이 뿌리 부분만 "하프 inch" 블록 실려주는

시크릿 하프 inch 펌

- 갈라진 가마 자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 볼륨있는 생머리 스타일이 가능해집니다.
- 납작한 머리형이 풍성하게 살아납니다.

*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예약을 우선합니다) 새라김 헤어스튜디오 ☎ (714)530-5755

8762 Garden Grove Bl. #106, Garden Grove, CA 92844(김치나라 건너편)

부에나 팍 양로병원

Buena Park Nursing Center ★★★★★

Skilled Nursing
 IV 투여, 당뇨, 통증관리, 투석케어
 외상치료, 호스피스케어 등

Subacute Unit
 Respiratory, Tracheostomy Care
 Ventilator 등

서비스	재활치료
한국음식 또는 미국음식 한국인 스태프 / 한국인 소셜워커 한국책, 신문 / 24시간 한국방송 다양한 한인교회 봉사활동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메디케어, 개인, 메디칼, HMO, PPO 취급합니다

www.buenaparknc.com

한국어: 562-240-3516 한국분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영어 : 714-828-8222 Fax: 714-828-1467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꿀약국™
Honey Pharmacy™

건강한 약국, 꿀약국!

독감 예방접종 합니다. 꿀약국으로 오세요!

꿀약국 예방접종센터

처방전 필요 없습니다! 예약도 필요 없습니다!

- **Shingles(대상포진)**
- **Flu(독감)**
- Prevnar 13, Pneumovax 23(폐렴)
- Hepatitis A, Hepatitis B(간염)
- M-M-R(홍역, 볼거리, 풍진)
- Meningitis(수막염)
-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 Typhoid(장티푸스)
- HPV-Human Papilloma(인간 유두종)

스페이스 임대 2,279 Sqft

7002 Moody St. #108~109
La Palma, CA 90623

메디컬 오피스 환영

꿀약국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한 내용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같은 약국, 꿀약국!

Kaiser Permanente, Rite Aid
10년 약사 경력!



약학박사 로렌 민 / 약학박사 안젤라 권
매니저 벤자민 유

Tel: 562.403.2332

Fax: 562.403.2331

7002 Moody St. #106, La Palma, CA 90623 Honeyrx123@gmail.com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PPO, HMO 받습니다 카카오톡 상담 환영



